

# 융복합시대에 디지털문화와 시의 효용성 연구

서혜련<sup>1</sup>, 김경순<sup>2\*</sup>

<sup>1</sup>우석대학교 영어교육과, <sup>2</sup>우석대학교 국제언어문화학과 교수

## Digital Culture and the Utility of Poetry in a Convergence Age

Hae Ryen Seo<sup>1</sup>, Kyoung Soon Kim<sup>2\*</sup>

<sup>1</sup>Dept. of English Education, Woosuk University

<sup>2</sup>Dept. of Global Language and Culture, Woosuk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문화에 잠재한 폐해들 중 하나인 지각의 자동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지각의 자동화 현상에 대한 시의 지각의 낮설게 하기 효과, 시의 치료적 기능과 시적 장치로서 은유 등을 포함한 시의 효용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디지털 문화의 속성과 그 폐해, 특히 디지털문화의 부정적인 영향인 지각의 자동화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디지털시대의 급격한 기술혁신의 결과 우리는 다양한 경험과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장밋빛 미래를 전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기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의존으로 지각의 자동화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시는 사물들을 낮설게 하며 형식을 까다롭게 하여 지각의 자동화를 막고 상상력, 문학능력과 창의성을 증진시킨다. 또한 시의 치료적 기능은 새로운 경험을 하며 공감능력을 키우게 하고 때로는 상처 받은 마음에 위안과 평화를 주어 정신건강을 회복하게 한다. 전통적인 시뿐만 아니라 디지털 융합기술로 탄생한 하이퍼텍스트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시에 대해 앞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융복합시대, 지각의 자동화, 낮설게 하기, 감정적 카타르시스, 치료적 기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a digital culture, its negative effects, especially automatism of perception, a poetic strategy against automatism of perception and the utility of poetry including the therapeutic function of poetry. The new technologies offer us various experience, great opportunities and rosy future by freeing us from boring and laborious tasks, and difficult decisions. Through the excessive and habitual use of new technologies, we may become too dependent on machines, losing our thinking abilities, sensibility, perception and creativity. Therefore, we need poetry to recover the sensation of life and make us feel things. Reading poetry allows us to look into someone else's soul and cultivate the ability to empathize. As a healing fountain, poetry leads us to a way for a change of heart, a recovery of psychic health and universal love through perfect communion in ourselves and in society. Furthermore we need a systematic and in-depth study of digital poetry as well as traditional poetry.

**Key Words** : Convergence age, Automatism of perception, Unfamiliar, Cathartic release, Therapeutic function

### 1. 서론

디지털시대, 즉 정보화시대인 현대는 혁신적으로 눈부시게 발달한 디지털 혁명 즉, 정보전산화와 첨단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융합되어 역사

상 유례없이 혁신적인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경계를 구축한다.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의료, 사물인터넷, 환경, 신재생에너지, 3D프린터, 바이오에너지, 증강현실 등의 개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흐름에 발맞추어 많은 창업자들이 인공지능을 접목한 서

\*Corresponding Author : Kyoung Soon Kim kks@woosuk.ac.kr)

Received November 22, 2017

Accepted January 20, 2018

Revised December 22, 2017

Published January 28, 2018

비스를 개발하고 대기업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데 주력한다. 교육계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이 정보라는 교과목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2018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중학생들에게 IT(코딩)교육을 34시간, 초등학교 17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많은 대학도 SW특기자전형으로 컴퓨터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입학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소통, 언어, 인지, 행동, 사고방식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디지털기술은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지만 많은 후유증을 남긴다. 디지털 문화의 속성과 그 폐해, 특히 디지털문화의 부정적인 영향인 지각의 자동화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각의 자동화에 대한 시의 지각의 낯설게 하기 효과, 시의 치료적 기능 등을 포함한 시의 효용성을 고찰한다.

## 2. 디지털 문화와 지각의 자동화 현상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최첨단의 방대한 규모의 영향으로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일이 현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처리된다. 이런 변화는 정치, 외교, 경제, 언론, 예술, 문화와 사회규범 등을 포함한 사회의 전체 영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코헨(E. S. Cohen)은 이처럼 빠르게 커지는 규모와 인터넷 기술에 의한 '상호연결성'과의 결합에 주목한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 태블릿 PC, 노트북, 자율자동차, 정보시스템, 로봇공학,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 곧 등장할 또 다른 발전은 우리가 디지털기술과 훨씬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상호연결성이 확대되고 확장되면서 세계화는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공유하는 칸 아카데미를 포함하여 많은 새로운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체험하게 된다. 인공지능박기, 몸에 삽입하는 인공칩 등으로 인한 건강혁명의 시대에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져 풍성한 오락거리, 지적이고 문화적 풍요로움, 휴식, 다른 사람

과 다방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누리게 될 것이다 [1].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똑똑해지는 인공지능과 기술혁신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편견 없이 훨씬 더 공정하고 논리적이며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합리적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한다. 기분에 따라 업무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는 인간과 달리 인공지능은 힘든 일,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 위험한 일을 불평 없이 24시간 쉬지 않고 처리할 수 있으며 값싼 노동력과 비용 절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심지어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자동화를 통해서 인공지능 로봇 등이 우주탐사 등을 포함하여 인간이 하기 어렵고 위험하며 지루한 일들을 대신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기기가 우리에게 혜택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기술의 영향으로 자동화의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 인공지능을 지나치게 습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기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사고력, 감수성, 지각과 창의성 등을 잃을 수 있다 [2]. 니콜라스 카(Nicholas Carr)의 지적처럼 조종간을 조작하지 않고 스크린만을 응시하는 조종사처럼 자동화는 우리는 행위자에서 관찰자로 전도되어 전문 지식을 배우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자칫 잃을 수도 있다 [3].

그러므로 인공지능의 자동화로 인해 신속한 처리와 편리함을 누리는 대신에 극단적으로 우리는 무능한 바보가 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은 또한 우리를 많은 위기와 위협에 노출시키기도 한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도덕적 경계도 없으며 명확한 윤리적·법적 규범도 없어서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특수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고 판단하여 결정을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악의적으로 이용된다면 인류에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의 이야기』(A Tale of Two Cities)의 첫 시작은 디지털 시대의 빛과 그림자 상황을 명확하게 잘 드러낸다.

*유래없이 가장 좋은 시절이었으며 가장 나쁜 시절이기도 했다.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고, 확신의 시대이자, 불신의 시대였다. 빛의 계절이었으며 어둠의 계절이기도 했다. 희망찬 봄이기도 했고 절망적인 겨울이기도 했다. 우리 앞에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이 펼쳐져 있었*

으면서 또한 아무 것도 없었고, 우리 모두는 천국으로 직행하고 있었으면서 또한 우리는 다른 쪽으로 직행하고 있었다 — 간단히 말해서 그 시절은 지금까지 현재와 너무 비슷해서 가장 목소리 큰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좋은 나쁜 간에 극단적으로만 고집스럽게 받아들였다 [4].

첨단 정보통신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기기 없이 하루도 지내지 힘들 정도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은 쉴 사이 없이 틈나는 대로 스마트폰으로 카톡, 문자를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SNS를 사용한다 [5]. 인터넷 공간에는 온갖 음란물과 폭력물 동영상들이 난무하고 많은 인터넷방송에는 상스러운 막말과 욕설로 넘쳐난다. 인터넷의 무한 확장성으로 음침하고 괴상한 음지와 인터넷 괴물문화에 노출되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죄책감과 아무 생각 없이 모방하여 비행을 저지르고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6]. 온갖 잡다한 정보를 선택하고 처리하느라 우리의 뇌와 눈은 지나치게 혹사당한다. 혹사당하는 뇌를 쉬게 하고 긴장된 뇌를 이완시키기 위해 산책, 명상요법 등을 비롯해 많은 해결 방법들이 제시되기도 한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서울 광장에서 처음으로 뇌를 쉬게 하자는 취지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오래 유지해야 하는 ‘멍 때리기 행사’가 개최되었을 정도이다.

디지털기기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디지털 치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디지털 치매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기억력 감퇴나 계산능력을 포함한 두뇌활용능력 저하를 초래한다. 의학적으로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어서 디지털치매 자가 진단 테스트와 디지털 치매 예방법 및 치료방법을 제시할 정도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니콜라스 카의 지적처럼 디지털 기기에 “기억을 아웃소싱할 때 우리는 지성이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아웃소싱”한다 [7].

우리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탑재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들이 우리를 광활한 세상으로 초대해서, 우리의 사고와 시야를 확장하고 시간을 절약시켜서 우리의 잠재력과 소양을 끌어내는 창의적인 재능들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준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때때로 예기치 않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해서 그런 기기들이 오히려 우리의 능력을 신장할 기회를 퇴화시키거나 차단시키기도 한다. 니콜라스 카 역시 기술에 대한 거의 종교

적인 믿음만큼이나 그에 못지않은 인간에 대한 엄청난 불신으로 기계 중심의 자동화는 인도주의적이 아닌 비판적인 목표를 지향한다. 이러한 기계 중심의 자동화는 혁신기술을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공상가가 내세우는 “누가 인간을 필요로 할까?”라는 식의 냉소적인 태도를 기계 설계의 핵심윤리로 삼게 될 우려를 낳는다. 그 결과 기계와 디지털기기들은 가정을 포함하여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태도를 심어줄 수 있다 [3]. 자동화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에서 점점 멀어지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온갖 디지털 기기들이 우리 일을 대신함에 따라서 자동화가 우리와 세상 사이에 개입할 때, 자동화로 인해 예술적 감각이 퇴화되고 기계적인 삶으로 인도할 위험이 복병처럼 우리의 삶에 도사린다.

니콜라스 카는 디지털문화의 문제점으로 집중해서 꼼꼼히 읽는 선형적 독서와 달리 인터넷 웹사이트 여기저기에서 핵심 단어를 찾아 자료 검색을 해서 대충 읽어보는 비선형적인 읽기 습관이 확산되는 반면에 집중해서 깊이 읽는 시간이 줄어드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자료를 전체적으로 읽는 능력 역시 집중적으로 꼼꼼하게 읽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하다. 문제는 대충 훑어보는 읽기 방식이 만연해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는 개인적으로 비판적인 사고와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는 창의적인 존재에서 “전자 데이터라는 숲의 사냥꾼이나 수집가”로 전락하여 자신의 생각이 없는 피상적인 존재로 전락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7]. 이런 맥락에서 그는 창의성,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문학적 뇌의 개발을 제안한다. 그에 의하면 단순히 글을 읽을 줄 아는 뇌 이상인 문학적인 뇌는 주변의 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고 깊게 읽게 하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정신적 과정에 활발하게 관여한다.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채우고 시야를 넓히며 상상력, 감수성과 의사소통능력 등을 키운다 [7].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피상적인 독서가 아니라 깊이 있고 폭 넓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비판적인 독서이다. 럼지(Abby Smith Rumsey)의 지적처럼 상상력을 점점 잃어가는 사회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엄청난 변화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상상력과 감수성을 키우는 일은 삶의 어느 단계에서나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술혁신의 속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짐에 따라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지식과

습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습관을 변화시켜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긍정적이며 융통성 있고 독창적인 대응 방식으로 그는 도덕적 상상력과 미학적 상상력 배양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8]. 미학적 상상력 뿐만 아니라 세계화 추세에 따라 지구촌이 되어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을 접촉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인 도덕적 상상력을 배양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에 의하면 미학적 상상력은 우리의 감성 지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친구, 배우자, 부모, 이웃, 시민, 일꾼이 되게 하는데 유용하며 중요하다. 미학적 상상력과 도덕적 상상력은 인간 조건의 본질로서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삶을 누리게 한다 [8].

### 3. 시의 낯설게 하기, 치료적 기능과 시적 장치

시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타성에 젖거나 혹은 정신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지쳐서 여유와 활력 없는 삶과 현실에서 쉽게 체험하고 터득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한다. 시는 습관화되고 기계화된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감각들을 일깨운다. 시는 언어에 대한 기대, 언어의 자동성을 저해하고 언어적 충격을 가하고 각각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와 생동감을 끌어냄으로써 의미지평을 넓히고 우리의 상상력이나 감정을 자극한다.

도덕의 위대한 큰 비밀은 사랑이다; 혹은 우리의 본성에서 탈피하는 것,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고, 행동, 사람 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굉장히 선해지기 위해서 인간은 강렬하게 이해심 있게 상상해야한다. 그는 그 자신을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두어야한다. 그의 종족의 고통과 쾌락은 그 자신의 것이 된다. 도덕적 선의 위대한 도구는 상상력이다. 시는 운동이 뼈를 강화시키는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도덕적 본성의 기관인 능력을 강화시킨다 [9].

시는 자아라는 좁은 세계를 넘어 폭 넓은 세계에 접하는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삶과 우주의 궁극적 의미와 가치를 찾게 도와주며 두려움, 불안과 고통을 극복하기가

힘들고 외로울 때 사랑과 이해로 감싸주고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얻도록 도와준다.

역사적 변화 특히 과학혁명으로 기존 질서체계와 종교가 무너짐에 따라 극심한 불안과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종교 대신에 시가 구세주가 될 수 있음을 리처즈는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혁신적인 과학의 발견으로 사람들이 전통적인 신화들을 전복시켜 그 전통적인 안정된 가치들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사회는 위기와 혼돈상태에 빠졌다. 인간심리의 절묘한 균형과 평형감각이 위험하게 깨졌으며 그 균형을 다시 잡는데 무너진 종교가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구원과 위안이 될 수 있다. 시는 “우리를 구해줄 수 있으며... 혼란과 좌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구할 수 있다” [10]. 시는 지시적 언어라기보다는 정서적 언어이며 세계를 묘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만족할만한 방식으로 조직할 뿐인 일종의 유사진술(pseudo-statement)이다. 가장 효율적인 시는 최소량의 모순이나 혹은 좌절로 최대다수의 충동들을 조직하는 시다 [11]. 리처즈(L.A. Richards)의 지적처럼 정서적 혼란, 절망감과 혼돈을 극복할 거의 완벽한 수단으로서 시는 현대적 실존의 무질서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훌륭한 구원책이 될 수 있다.

현대사회처럼 1930년대 혼란스럽고 암울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위기, 우울, 불안감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노력이었다. 불안하고 위급한 상황에 오든 시의 필요성, 시인의 능력, 의무와 책임감에 대해 역설한다.

그래서 이 위기와 절망의 시기에,  
가장과 위안으로부터 걸치레의 무미건조한 작품들을  
그대의 엄격하고 성숙한 펜보다 더 잘  
우리에게 경고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보다 무엇이 더  
아카데미와 정원의 구질구질한 그림자를 드러낼 수 있을까,  
행동이 화급함을 알리고 그 본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에게 정밀한 통찰력, 흥포한 재난을 줄 수 있을까?  
So in this hour of crisis and dismay,  
What better than your strict and adult pen  
Can warn us from the colours and the consolations,  
The showy arid works, reveal  
The squalid shadow of academy and garden,  
Make action urgent and its nature clear?  
Who give us near insight, the savaging disaster?

[12]

이런 질문들은 기존 체제와 상황이 아주 생경한 30년 대라는 새로운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는 문학적 반응이자 시도로 새로운 환경에 부응할 새로운 기교와 혁신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시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일상언어와 달리 참신한 시어의 문제들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어가 평범한 언어와 달리 경이롭고 낯설어야 한다고 했으며, 코올리지(Samuel Taylor Coleridge),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를 포함한 낭만주의 시인들은 시의 진정한 특징을 새롭고 신선한 감각이라 보았으며, 초현실주의자들도 근본적으로 예술을 재생의 행위와 놀라움의 부흥이라 보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라기보다는 부차적인 문제이었으며, 중요한 쟁점으로 집중적으로 주목을 끌게 된 것은 바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과 프라하학파들에 의해서다.

쉬클로프스키(Victor Shklovsky)는 시어의 중요한 기능을 ‘낯설게 하기’라는 문학적 장치에 둔다. 지각이 습관화되면, 자동적이고 기계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이 된다. 습관적인 우리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이 되어버려 많은 일상적인 행위들은 대부분 무심한 채로 지나쳐버린다. 예컨대 문을 잠그는 행위처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그 행위 자체 여부를 분간하고 기억할 수 없다. 이렇듯 지각의 습관화는 지각을 자동적이고 기계적으로 만들어버려서 지각하는 대상의 본질조차 의식하지 못하게 한다. 시는 예술적으로 창조되어서 그에 대한 지각이 방해되고 가능한 한 최대 효과는 지각의 꾸물거림에 의해서 언어짐으로써 그 대상은 공간 속에서 확장이 아니라 그 연속성 속에서 지각된다. 예술은 지각과 감각을 다시 찾도록 존재하며 새롭게 한다.

*예술은 우리가 삶의 감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존재한다. 그것은 사람이 사물을 느끼게 해주며 돌을 돌답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예술의 목적은 사물들에 대한 감각을 그것들이 알려져 있는 대로가 아니라 그것들이 지각되는 대로 부여하는 것이다. 예술의 기법은 대상들을 낯설게 하고 형식들을 어렵게 하고 지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각의 과정은 그 자체가 미학적 인 목적이고 따라서 연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술은 하나의 대상의 예술성을 경험하는 방법이며 그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 [13].*

시의 목적 역시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이며 일상적인

것에서 시적인 것으로 우리의 지각의 형태를 새롭게 바꿔주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시는 의도적인 창작활동의 산물로서 감각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상상력, 문학적인 감수성을 일깨워서 문학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킨다.

시는 단어들의 특이한 배열, 리듬, 다양한 시적 장치, 운율과 단어들이 내포한 의미 구조뿐만 아니라 음성과 어휘의 구조를 통해 일상언어와 다른 시적 특성을 드러낸다. 시에서 단어들을 독특하게 배치함으로써, 시어를 음성적으로 거칠게 함으로써, 외국어와 고어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절묘한 스타일과 언어의 다의적인 스타일의 활용을 통해서 낯설게 할 수 있다. 쉬클로프스키가 시를 비비꼬이고 뒤틀러진 형식화된 언어라 부른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감정들로 충만한 문학언어는 기호들이 최대량의 힘을 발휘하여 우리의 상상력과 감정을 자극한다 [14]. 시어는 언어의 기대감, ‘언어의 자동성’을 좌절 시킴으로써 ‘언어적 충격’을 가한다. 바꿔 말하면 시어는 “초목과 같이 지상에 자연적으로 자라는 자연물들”과 같아서 각기 새로운 문맥 속에서 생동감과 다양하고 새로운 의미를 끌어올 수 있다. 시는 일상언어의 자원들을 훨씬 더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조직화한 언어이자 “단순한 대상물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와 관계를 지닌 성층적인 성격의 고도로 복잡한 조직”이다 [15]. 잭슨(Leonard Jackson)이 문학을 인문과학의 마지막 텍스트로 규정하여 우리가 문학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시를 포함한 문학의 이러한 특성에 연유한다 [16].

시인의 역할, 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질병에 대한 시의 치료효과는 오든의 시 「W. B. 예이츠를 추모하며」(“In Memory of W. B. Yeats”)에 잘 나타난다.

*시인이여, 즉시 쫓아가라.  
밤의 밑바닥까지 쫓아가라.  
그대의 거침없는 목소리로  
여전히 우리를 설득하여 기쁘게 하라.*

*시를 가꿈으로써  
저주를 포도원으로 만들고,  
고통의 환희 속에서  
인간의 실패를 노래하라.*

*마음의 사막에  
치료의 샘이 솟게 하고,*

그의 시대의 감옥 속에서도  
자유인에게 찬미하는 법을 가르치라.

*Follow, poet, follow right  
To the bottom of the night,  
With your unconstraining voice  
Still persuades us to rejoice;*

*With the farming of a verse  
Make a vineyard of the curse,  
Sing of human unsuccess  
In a rapture of distress;*

*In the deserts of the heart  
Let the healing fountain start,  
In the prison of his days  
Teach the free man how to praise.*

여기에서 화자는 시인에게 시는 변형과 치료의 기적을 일으키라고 기도한다. 시가 어떤 일을 일으키지 않는 다 할지라도 말의 골짜기에서 살아남아 저주를 포도원으로 그리고 괴로움을 황홀함으로 변형시킨다. 시가 암울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어 그 행동에 영향을 기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적, 영적 전망을 변형시킬 수 있는 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자신이 되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다. “암흑의 악몽” 속에서 걱정, 공포,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지쳐버리고 무기력해진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고, 현대의 황량한 사막 속에서 인간의 소외, 고독에서 오는 정신질환을 치유하며, 감옥과 같은 이 시대에 자유인에게 찬미하는 법을 가르칠 자는 오직 시인이라는 것이다.

시의 치료적 기능은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 TV, 라디오, SNS,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포된 시, “애야, 엄마의 손을 빨리 꼭 잡아라”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에서 극적으로 나타난다. 심금을 울린 이 시는 지진으로 친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감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엄청난 재난 앞에서 보여준 중국인들의 불굴의 용기를 찬미하였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상실감과 슬픔을 분출시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꼈으며 국민적 통합과 단결, 애국심과 자부심이 고조되었다 [17].

시에서 언어의 비판습적인 사용은 단어나 시의 연상, 생각, 의미에 대해 감각을 새롭게 하고, 관습화된 규범을

전복시킴으로써 언어의 질서를 파괴하고 재조정한다. 이런 형식들이 전복적일지라도 이들의 중요한 효과는 규칙 혹은 형식을 파괴하는데 있다기보다는 그것들을 가지고 혁신적으로 실험하데 있다. 시의 중요한 장치인 은유가 바로 그런 실험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한 사물, 사건 혹은 장소를 또 하나의 다른 것에 연결하면서 은유는 우리가 보통 알아채지 못하거나 혹은 심지어 하찮다고 여기는 것에 새롭고 흥미로운 자질을 부여한다. 은유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하다. 『시학』에서 은유를 능숙하게 다루는 일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탁월하게 은유를 다루는 것은 사물들 속에서 유사성을 지각하는데 달려있기 때문에 타고난 최고 수준의 천재성의 증거”라 보았다 [18]. 다음 시에서 인생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 은유를 통해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제시된다.

*두통과 걱정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삶은 새어버린다.*

*In headaches and in worry  
Vaguely life leaks away.  
(W. H. Auden, “As I Walked Out One Evening”)*

인생은 액체가 담긴 그릇으로서 구체적으로 비유된다. 그릇에서 내용물이 새어가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삶도 항상 소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은유를 통해 시인은 걱정, 두통, 불안 등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 놀랍도록 간결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시인은 은유를 통해 단어의 의미에 변화를 주거나 비틀어서 풍성하게 한다. 이렇듯 은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일상화되고 기계적인 단어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이질적인 것들을 서로 연관시켜 삶의 세계를 넓히는 기발한 장치이다.

기존의 낱아빠진 언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진 관념, 편견, 일상화된 체제, 고정관념이나 인습 등에서 벗어나 우리 삶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 인식 유형을 제공하여 시는 열린 세계를 지향하게 한다. 우리는 시에서 서로 이질적인 것들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연결시켜가면서 색다른 체험을 하고 공감대와 시야를 넓혀간다. 우리는 시의 의미지평을 넓혀가면서 우리 자신의 세계를 훨씬 더 새롭게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잠재력,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고 촉진시킬 수 있다.

*창의성은 사물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볼 때 그들은 그것을 실제로 하지 않았고 단지 어떤 것을 보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약간 죄의식을 느낀다. . . .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겪은 경험들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사물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19].*

시는 상상력을 발휘해 스티브 잡스가 강조한 창의성을 개발할 좋은 터다. 수십 년 동안 창의성을 연구한 신경과학자인 안데르센(Andreasen)은 논문 “창의적인 뇌의 비밀”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관계들을 알아채어서 연상과 연결을 지어서 독창적인 방식으로 사물들은 바라보는데,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사물들을 잘 보는 사람들이라 규정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스티브 잡스와 안드리아센의 지적처럼 천재성이나 창의성은 완전히 다른 것들 속에서 유사성을 찾아서 서로 연결시키며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다 [20].

시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기능과 다원화된 시적 의사소통 과정으로서 시는 살아 움직이는 시적 실재를 구축하여 독자의 상상력과 감정을 자극하고 무한한 예술적 잠재력과 생명력을 지닌다. 다시 말해 시는 “죽지 않으며 의미심장하게 그 젯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서 끝없이 시의 과거와 현재가 되도록 구성한다” [21].

####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혁신적인 디지털기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 경제성, 편리함, 안락함을 넘어서 새로운 인식, 사고, 언어, 행동, 문화 양식을 창조하고 있다. 디지털기기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기계 중심의 자동화는 지각의 자동화, 기억력 감퇴나 두뇌활용능력 저하, 비판적 사고와 깊이 있는 독서보다는 대충 훑어보는 피상적인 독서 방식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우리는 지각의 자동화와 더불어 상상력, 예술적 감각이 퇴화되고 기계적인 삶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니콜라스 카

는 문학적 뇌의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문학능력, 창의성,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데 시 읽기는 적절한 수단이다.

기술혁신과 디지털 시대에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빠르게 허우적거리며 자동화되고 기계적인 삶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삶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중심을 잃지 않고 신선한 감각을 되찾고 도덕적 상상력과 미학적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디지털문화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도덕적 상상력과 미학적 상상력으로 신선한 감각을 되찾는데 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를 읽으며 현실에서 불가능한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세상에 대한 시야를 폭넓게 함으로써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심리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폭 넓히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기할 수 있다. 시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삶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공감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시는 세상에 단아버린 마음과 정신에 깊게 숨겨진 상처를 드러내고 새로운 경험과 생각을 하게 한다. 과학적 합리주의와 눈부신 혁신적인 기술의 여파로 여유 없이 메말라가며 삭막해져 마음의 사막 속에 처한 우리에게 시는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정서적인 결핍을 메꾸고 정신적인 피폐함을 치유하고 심미적인 대안으로 감각을 새롭게 하며 삶을 충만하게 할 정신적인 안식처와 치유의 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시치료학회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시치료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22].

융복합시대의 디지털융합기술에 힘입어 활자뿐만 아니라 미디어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한 애니메이션, 게임, 유튜브, 뮤직비디오, 영화, 팝송 등을 적용한 시의 폭 넓은 장르, 예컨대 하이퍼텍스트시, 홀로그램시, 코드시, 사운드시, 실험비디오시, 퍼포먼스시, 상호작용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시를 통해 시의 치료적 기능과 효과를 향상시키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는다.

#### REFERENCES

- [1] Cohen, Eric Schmidt Jared. “The New Digital Age”. Trans. JInwon Lee. pp. 28-55, Sigongsa Inc., 2013.
- [2] Tegmark, Max. “Benefits &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https://futureoflife.org/background/benefits-risks-of-artificial-intelligence/>
- [3] Carr, Nicholas. "The Glass Cage". Trans JInwon Lee. pp. 106-42. The Korea Economic Daily BP, 2014.
- [4] Dickens, Charles. "A Tale of Two Cities". p. 5, Penguin Books Ltd. 2003.
- [5] Loushuangshuang Zhang, Misu, Na, "A qualitative study on women's daily lives and smartphone use-focusing on interviews with Chinese women in their twen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0, p.468, 2017.
- [6] J. Y. Lim, "Comparison of Anger Expression Style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among Male adolescent game users depending on the level of Game Addiction and Engage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0, p.340, 2017.
- [7] Carr, Nicholas. "The Shallows", New York: Brockman, Inc., Trans. Jihyang Choi. pp. 92-286. Chungrim Publishing Co., Ltd., 2011.
- [8] Rumsey, Abby Smith. "When We Are No More - How Digital Memory Is Shaping Our Future". Trans. Seonghye Gwak. p.287, Uknowbooks, 2016.
- [9] Shelley, Percy Bysshe. "A Defense of Poetry", Criticism: The Major Texts, p.432, Ed. W. J. Bate.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0.
- [10] Richards, I. A. "Poetries and Sciences". P.78, Routledge & Kegan Paul, 1935.
- [11] Richards, I. A.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pp. 31-33. Routledge & Kegan Paul, 1970.
- [12] Auden, John. "Selected Poems". Ed. Edward Mendelson. p. 44. Faber & Faber, 1979.
- [13] Shklovsky, Victor. "Art as Technique," Russian Formalist Criticism Four Essays. Eds. Lee T. Lemon and Marion J. Reis. p.12. U of Nebraska P, 1987.
- [14] Moraze, Charles. "Literary Invention," The Structuralist Controversy. Eds. Richard Macksey & Eugenio Donato. pp. 22-23, Johns Hopkins UP, 1979.
- [15] Wellk, Rene and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p. 73-80, Penguin Books, 1970.
- [16] Jckson, Leonard. "The Poverty of Structuralism: Literature and Structuralist Theory", pp. 259-70, Longman, 1991.
- [17] Inwood, Heather. "Multimedia Quake Poetry: Convergence Culture after the Sichuan Earthquake." The China Quarterly No. 208 (DECEMBER 2011), pp. 932-949, 2011.
- [18] Aristotle. "Poetics". The U of Michigan P, p.61, 1970.
- [19] Popova, Maria. "I, Steve: Steve Jobs in His Own Words via 200 Quotes" <https://www.brainpickings.org/2011/10/20/i-steve-steve-jobs-in-his-own-words/>. August 2, 2017.
- [20] Andreasen, Nancy C. "Secrets of the Creative Brain," July/August 2014 Issue The Atlantic. [https://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14/07/secrets-of-the-creative-brain/372299/?utm\\_source=famamstreet.org&utm\\_medium=email&utm\\_campaign=brainfood](https://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14/07/secrets-of-the-creative-brain/372299/?utm_source=famamstreet.org&utm_medium=email&utm_campaign=brainfood). July 30, 2017.
- [21] Valry, Paul. "Poetry and Abstract Thought: Dancing and Walking," 20th Century Literary Criticism. Ed. David Lodge. p. 261, Longman, 1972.
- [22] K. S. Kim, "The healing Properties of English Poetry in a digital a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0, p.439, 2015.

서혜련(Hae Ryen Seo)

[정회원]



- 1981년 2월 : 전북대학교 영어 교육과 (학사)
- 1984년 2월 :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 1992년 2월 :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박사)
- 1994년 3월 ~ 현재 : 우석대학교 영어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영미시, 영문학, 영어 교육
- E-Mail : seohrr@hanmail.net

김경순(Kyoung soon Kim)

[정회원]



- 1983년 2월 :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학사)
- 1987년 2월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석사)
- 1995년 2월 :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박사)
- 1995년 3월 ~ 현재 : 우석대학교 국제언어문화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영미시, 영문학, 영어 교육
- E-Mail : kks@woosuk.ac.kr